

우리 가락으로 장마·무더위 이겨요

광주문화재단, 21일 '진:소리'...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대가 김형섭 독주 22일 무등풍류연 '칠월송아지 여름나기'... 판소리 공연·동화 구연·체험활동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기분이 다운되기 십상이다. 이럴 때 우리의 전통 소리와 가락을 통해 기분전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종년, 이하 재단) 전통문화관은 국악을 매개로 한 전통공연을 잇따라 열어 눈길을 끈다. 21일(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국악 공연 '진:소리'와 22일 무등풍류연 '칠월 송아지 여름나기'가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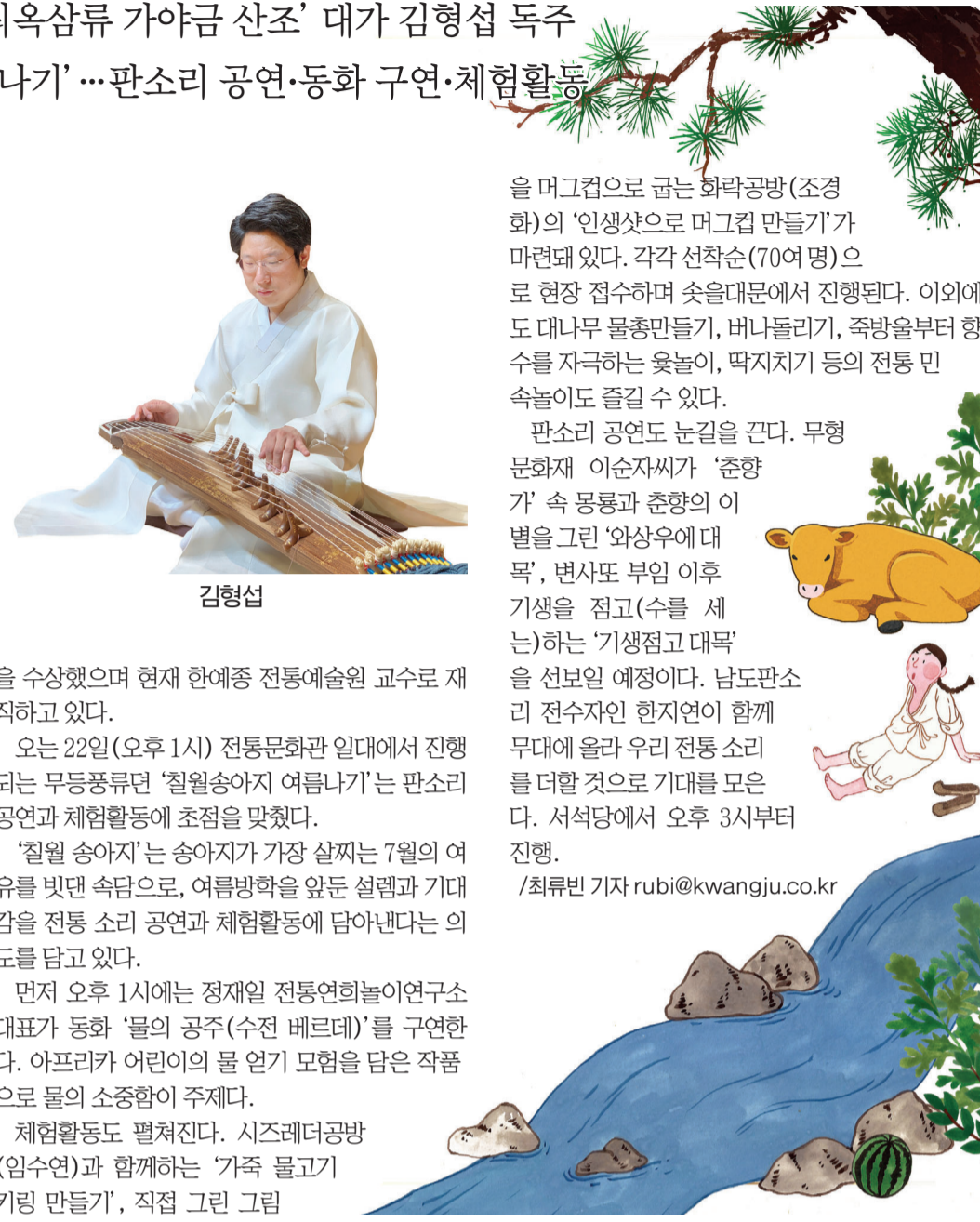
먼저 '진:소리'에서는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의 대가 김형섭이 독주를 펼친다.

공연은 숨을 고르는 '다스름'으로 시작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늦은자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의 총 7장의 레퍼토리를 이어간다. 여기에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인 정택수 고수가 흥겨운 장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가야금 산조는 19세기부터 전승 및 연주가 활발해 김죽파류, 성금연류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중 최옥삼류에는 '조기 산조의 형태를 잘 간직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총 6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 '진:소리'는 8월에 판소리 고법 양신승(25일), 9월 아쟁 산조 서영호(22일), 10월 동편제 판소리 이난초(27일)의 무대 등이 계획돼 있다. 이어 11월 김상연의 대금 산조(24일), 12월 동초제 판소리권 박미정(일차 미정)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 오르는 김강조는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한양대에서 음악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을 역임하는 한편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23회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예중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오는 22일(오후 1시) 전통문화관 일대에서 진행되는 무등풍류연 '칠월송아지 여름나기'는 판소리 공연과 체험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칠월 송아지'는 송아지가 가장 살찌는 7월의 여유를 빚낸 속담으로, 여름방학을 앞둔 설렘과 기대감을 전통 소리 공연과 체험활동에 담아낸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먼저 오후 1시에는 정재일 전통연희놀이연구소 대표가 동화 '물의 궁주(수전 베르데)'를 구연한다. 아프리카 어린이의 물 얻기 모험을 담은 작품으로 물의 소중함이 주제다.

체험활동도 펼쳐진다. 시즈레더공방(임수연)과 함께하는 '가족 물고기 키링 만들기', 직접 그린 그림

나주 국제레지던시 결과물 한 자리에

시, 22일 오픈 스튜디오... 20~60대 각국 작가 작품 50여점 전시

나주는 전통과 근대, 현대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화가 융합돼 있는 고장이다. '천년 고도 목사골'이라는 표현은 나주가 지닌 자부심과 정체성을 함의한다.

나주시는 올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도시브랜드를 위해 국제 레지던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관광을 하드웨어가 아닌 향유와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지역 고유의 문화 예술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나가는 취지다.

나주 국제레지던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주시 문화예술특화사업단(단장 장현우)은 오는 22일(오후 3시) 국제 레지던시(구 공예창작소 통센터, 남외동 3-14)에서 오픈스튜디오를 연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나주시 국제 레지던스'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오픈 스튜디오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세계 각국의 작가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된다.

참여작가로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은비'의 정영창 작가가 눈에 띈다. 목포 출신인 그는 독일 카셀 예술대학에 입학했으며 뒤셀도르프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지난 2018년 광주 상무관에 5·18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검은비를 설치했으며 현재 뒤셀도르프와 나주를 거점으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안재는 폴란드 출신으로 브레슬라우에서 사진을 공부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즉흥적



나주 국제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들.

(나주문화예술특화사업단 제공)

으로 모델을 구해 촬영을 하는 만큼 무대는 전 세계 거러다.

장흥 출신 마종일은 뉴욕 스펀스비주얼아트에서 혼합 미디어를 전공했다. 20여 년 동안 다수의 미술관, 갤러리, 세 번의 국제 비엔날레에 참여했다.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의식적 변화에 관심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해왔다.

베트남 국적의 하이투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디지털 아티스트,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레이아웃과 브랜딩 작업을 위주로

하며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있다.

한편 장현우 문화예술특화사업단장은 "이번 오픈 스튜디오는 특별한 주제는 없지만 레지던시 참여작가들이 나주에 와서 느낀 점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화사업단은 향후 국제문화예술 네트워크, 교류 등을 매개로 나주시만의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실내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담다

광주시향 '실내악 시리즈 III' 28일 금호아트홀

실내악의 묘미 중 하나는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하나의 '방(Chamber)'에서 호흡한다는 점이다. 조촐한 공간을 선명하게 채우는 현의 떨림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이 기획 공연 'GSO (Gwangju Symphony Orchestra) 실내악 시리즈 III'를 28일(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선보인다.

광주예술의전당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10명 이내의 소규모 기악 합주곡인 '실내악'에 초점을 맞췄다. 관현악과 달리 각 성부를 한두 사람이 연주하는 것이 특징적인 실내악은 시기마다 차이가 있으나, 근대 이후 '순수한 악기의 선율을 담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세 현악기의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바이올린 연주자로 이준, 강다영, 김수연이 오르며 비올라에 엄광용, 박석운, 양신애, 조수영, 첼로에 이후성과 조은강이 호흡을 맞춘다.

드보르작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테르제토'가 막을 연다. 3중주(창)를 의미하는 '테르제토'는 비올라 연주자이기도 했던 드보르작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친구(안 펠리칸)와, 그의 제자(요제프 크루이스)와 공연하기 위해 작곡한 작품이다.



바이올린 이준

비올라 양신애

이어 독일의 작곡가 겸 첼리스트 쿨머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듀엣'이 공연장에 울려 퍼진다. 바흐의 '비올라 사중주를 위한 사론'도 마련됐는데, 원곡에서 추가 되는 바이올린 대신에 이번 공연은 비올라의 저음을 중심으로 편성해 색다른 매력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도 감상할 수 있다. '플로렌스의 추억'은 부제이며 원 제목은 '피렌체의 추억'. 러시아 실내악에서 보기 드문 현악 섹스텝(6중주)의 화려함이 악곡에 감돌지만 그 속에서 차이콥스키가 요양 중 느꼈던 잔잔한 슬픔까지도 느껴볼 수 있다.

전석 1만 원, 티켓링크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추억 소환하는 풍경들

자연심 '풍경' 전 2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갤러리 '화해'

여느 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그림에는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 작가가 타고난 성향이 다르듯 그림 또한 그러한 특징을 반영한다. 동일한 사물을 그려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피워낸다.

자연심 화가가 '풍경'을 주제로 김대중 컨벤션 갤러리 화해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전시는 자연으로 대변되는 풍경에 초점을 맞추고 아름다움과 추억을 소환한다. '꽃의 향연', '고향 가는 길', '산' 등 모두 24점이 출품됐다.

'꽃의 향연'은 형형색색의 꽃잎을 모티브로 작가의 심상이 투영된 작품이다. 거친 듯 부드러운 화면은 작가의 내면에 드리워진 지나온 삶과 자연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다채로운 색으로 무리지어 영긴 꽃들은 아련한 정감과 아울러 다소 우울한 정서를 환기하기도 한다.

자연에 대한 동경 이면에는 생명에 대한 경이 감도 드러워져 있다. 꽃이 하나하나가 생명이자



'꽃의 향연'

한명 한명 소중한 인연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때 문이다.

지 작가는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연을 통해 사람살이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며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연과 하나되는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지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광주미술작가회, 한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제로베이스 경매' 개최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재단)은 지역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제로베이스 경매'를 개최한다.

재단이 추진하는 이번 '제로베이스 경매'는 지난 3년간 출품된 205점이 100% 낙찰된 경매로 전남 신진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시작가 0원부터 경매해 구매자들이 작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주)서울옥션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경매에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오는 8월 3일까지 재단에서 운영 중인 남도메타버스미술관에 회원 가입해 온라인 전시관을 생성 후 응모작품을 전시하면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초본과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

서를 담당자 이메일(sjin1014@jncf.or.kr)로 발송하면 된다.

공모 참여 자격은 전남에 거주 중이거나 전남 출생 또는 전남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진 미술작가라면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재단은 제로베이스 경매와 더불어 하반기에 열리는 '아트 쇼핑 파티', '싱가폴 어포터블 아트페어', '서울아트쇼', '인천 아시아 아트페어' 등 국내외 유명 아트페어에 참가할 화랑(갤러리)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설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원2길3(서원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